

4 장 하느님: 실재의 심장(God: The Heart of Reality)

- 기독교의 심장에는 하느님이 있으며, 하느님의 실재에 관한 강력한 확인(robust affirmation)없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 하느님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느님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느님의 성격은 어떠한가? 등등...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 오늘날 North American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대체로 이 두 개의 다른 방법은 earlier paradigm 과 emerging paradigm 에 부합한다.

하느님의 실재(The Reality of God)

- 현대 세계에서 하느님에 관한 질문을 이해하는 데 중심적인 것은 ‘세계관의 개념’(the notion of worldview)이다. 우리의 세계관(worldview)은 실재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실재를 보는 렌즈이다.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이 진짜인지(what is real)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형성한다.
- **크게 두 종류의 세계관**
 - 1) **종교적인 세계관 - “more” 그 이상** ... “The More”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God, Spirit, the sacred, Yahweh, the Tao, Allah, Brahman, Atman, and so forth.
 - 2) **비종교적인 세계관 - “this” 이것** ... 이 세계관은 modern Western 문화의 지배적인 세계관이며, 주로 근대적 세계관이라고 불린다 (the modern worldview or the worldview of modernity).
- 지난 3 세기 동안, 이 두 세계관은 서양문화와 충돌했다 -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논점이 하느님의 실재에 관해 묻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근대 세계관은 하느님에 대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 it leads to 신의 존재 거부, 또는 신의 존재에 대해 심각한 의문, 무신론, 또는 신의 존재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는 불가지론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즉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대 세계관의 실재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을 그 세계관에 더한다. 이들에게 하느님은 supernatural being 이며, 바깥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된다. --- 이것은 ‘하느님’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 하느님의 실재에 대한 물음 --- “Is God real?” “Is there a More?” 마커스 보그’s answer is “yes.” 이에 대한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데이터를 제시
 - 1) 세계의 종교들의 집단적 증언 (그들의 확언은 그들이 아는 것을 근거로)
 - 2) 종교적인 경험들
 - 3) 포스트모던 과학에 등장하는 실재의 비전은 종교적 세계관과 양립 가능

하느님에 대한 두 개념(Two Concepts of God)

- 하느님 - 세상의 관계: 하느님은 세상 밖에 계신가? 세상 안에 계신가? Or both?
 - 1) **초자연적 유신론(Supernatural theism)**
 -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personlike being*. 하느님은 하늘 위에서(up in heaven), 밖에 우주 너머에서(out there beyond the universe) 때때로 세상에 개입한다: 성서의 인물들, 특히 예수의 탄생, 기적, 죽음, 부활 —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 (65).

→ 지난 수백년 간 서구 기독교를 지배하던 개념이었다 --- 이유는, 계몽주의(Enlightenment) 근대 서구 기독교를 지배한 초자연적 유신론은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하느님의 실재를 세상 밖과 이 곳에서의 멀어짐을 강조할 때,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는 왜곡되고, 하느님의 개념은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사실, 근대 이전에 “up there” or “out there”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멀지 않고, 가까웠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우주는 지구와 함께 작은 존재로서 생각했으며, 해, 달, 행성, 별들도 지구와 멀지 않다고 생각했다 (68). 하느님이 우리와 동떨어진, 너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다보니, 하느님의 부재, 무신론까지 이어졌다.

2) 범재신론(Panentheism) --- “moreness” and “present”

→ 이 개념은 200 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근대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고대적, 전통적 개념이다.

우주는 하느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며, 하느님 안에 있다. **God is “the More” who is “right here.”**

Encompassing spirit: “The universe is not separate from God, but in God” (p.66)

→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pan 은 ‘모든 것(everything)’을 뜻하며, en 은 ‘안에(in)’, 그리고 theism 은 ‘하느님(theos).’

→ 범재신론은 또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글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 17:28).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느님은 바깥에 있지 않고, 이 곳 여기 우리 주위에 있다.

→ Encompassing spirit 으로서, 하느님은 more than everything, even as everything is in God. 그러므로 하느님은 이 곳 여기(right here) 뿐 만 아니라, 이 곳 너머 그 이상에(more than right here). Encompassing spirit 으로서의 하느님은,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할 때, 세상 밖에서 안으로 개입(intervention)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 너머 그리고 세상 안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하시는 하느님이다. 어떠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분이 아니라, as a presence beneath and within our everyday lives.

→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신성한 개입(divine intervention)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타인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중재와 청원의 기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범재신론은 기도의 효험과 이변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느님의 신성한 개입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 자연재해, 테러 등등... 따라서, 범재신론은 **“divine intentionality”와 “divine interactivity”**를 제외하고,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 범재신론은 유신론의 대안적인 형태이다.

- 하느님의 개념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해보자! (p.69)

a) 하느님이라는 용어 그 자체의 의미

→ 폴 틸리히(Paul Tillich):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초자연적 유신론의 입장과 같이 현존하는 존재(a particular existing being)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가장 흔한 서구의 사고... 무엇(What is), 궁극적인 실재(Ultimate reality), 존재의 근거(the ground of being), 존재 자체(Being itself), 실재(isness)를 묻는 이름이다.

→ 하느님은 단순히 근대 세계관(modern worldview)이 정의하는 무엇(what is)으로 불릴 수 없다. 오히려, 토마스 키팅(Thomas Keating)이 말하듯 하느님은 한계가 없는 실재(isness without limitations)이며, 하느님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실재(isness)를 이름 붙이며 이해할 것인가.

b) 하느님에 관한 우리의 언어

→ 노자(도덕경): 이름 붙일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는 beyond all our words.

- **하느님은 encompassing spirit 으로서,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이며, is all around us and within us.**

인격적인 하느님(God as Personal)

- 하느님은 인격적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 문자 그대로 하는 해석(literalization)과 (such as 'the right hand of God') 하느님의 의인화(personifications of God)는 초자연적 유신론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로 우리를 이끈다.
- 다시, 하느님은 인격적인가?? 마커스 보그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모른다고 말한다 (p.73). 하지만, 인격적인(personal)과 비인격적인(impersonal)을 넘어, 하느님을 **'인격을 초월하는 존재(transpersonal)'**로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t means more than personal, not less than personal"

하느님의 성격(The Character of God)

- 당신의 하느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하느님의 성격은 어떠한가?
 - 주로 개인의 미덕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 주로 법관과 재판장으로서, 당신이 삶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분인가?
 - 요구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인가?
 - 주로 천국과 지옥의 하느님인가?
 - 주로 민족의 하느님인가?
 - 대체적으로 친절하신 하느님인가?
 - 대체적으로 무관심한 하느님인가?
 -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인가?
 - 사회 정의의 하느님인가?

하느님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 하느님의 성격을 두 가지로 구체화
 - 1) 요구와 보상의 하느님 - 율법의 하느님(God of law)
 - 불순종과 형벌, 희생과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 및 구원 /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 2) **사랑, 정의의 하느님(God of relationship and transformation)- 은총의 하느님(God of grace)**
 - 무조건적 은총(unconditional grace)이란, 천국을 소유한다거나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은총이란, 사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 그리고 은총의 하느님을 따를 때, 기독교인의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해 믿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하느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 관계 안에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을 보는 방법에 따라 기독교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 요구와 보상의 하느님 → bad news ... 최후 심판, threat, anxiety, and self-preservation
-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 → good news ... 이 곳, 여기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